

2018년 11월 6일, 제주시 월평동 월평동경로당, 이현정 조사.

김양언(남, 1940년생, 제주시 월평동)

- 제주시 월평동(다라곳)에서 출생, 월평동에서 11대를 살아오다가 1948년 4·3사건 때 제주시 화북동으로 피난하여 6년 간 거주하였다. 1954년 고향 마을이 재건된 뒤 돌아와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다.

- 줄거리: 고종달이 처음 제주도 구좌읍 종달리에 도착하였는데, 마을명이 자신의 이름과 같기 때문에 언짢은 마음에 제주도의 물혈을 종달리에서부터 끊어버렸다. 영평동 수수뭇의 신은 고종달이 물혈을 끊지 못하도록 밭을 갈던 농부에게 사발에 수수뭇의 물을 떠 자신을 숨겨달라고 부탁한다. 농부는 자신도 수수뭇의 물을 먹기 때문에 사발에 물을 떠 소길마 아래 숨겨 주었다. 고종달은 자신이 가진 술책에 표시된 대로 영평에 도착하여 수수뭇을 찾아 수맥을 끊으려고 했으나 숨겨진 행기물을 찾을 수 없자, 술책을 찢어 던져버렸다. 그래서 제주도는 수수뭇을 기준으로 서쪽에는 물이 나는 곳이 있다고 전한다.

[조사자] 옛날에 고종달이가 와가지고 물 어떻 맥을 끊었다 그런 얘긴 엿우과?

[제보자] 아, 그런 것도 있죠. 왜냐면 고종달이라는 말, 것도 내가 들은 말인데. 고종달이라는 사람이 그 저 구좌면 종달리에서 이제 내린 모냥이지.

“종달리라고 해 부니까, 자기가 기분이 나쁘다.”

고 했어.

전설로 보든, 거기서 내려서 그냥 그 물을 문뜩 이제, 그 저 종달리로부터 시작해연 이까지 쪽 떠오다가. 저 영평에 가며는 곱은낭 알에 물이라는 수수뭇이라는 물이 그 물이에요. 그디 물이 있어요, 그딘디. 그 전설로 우리가 들으려는 그 물이 그디서 이제 농사 짓는 이제 밭 가는 사람이 잇는데.

“아이고, 나가 물구신인데 나 물 요기 물을 훔 번 훔 사발만 떠다그넵에 게 자기를 살려 달라.”

는 물구신이 나와서 밭가는 머슴한테 허니까. 쉼질메라고 안 봐낫죠이. 영 꼬부랑진 낭 잇지예. 요렇게 꼬부라진 낭을 두 개 해서 그 짐 싣그는데, 그 행기뭇

곶은낭 알에 행기물이라 행 그추룩 한 중은 나 알아. 경허니까 이제 그 밧가는
사름이 그 물신이 나왕. 그 애길 허니까

“자기를 이제 잡으려 오니까, 물을 떠다그넝에 숨겨 달라.”

고 하니까 그 사름은 그 말 듣고 자기도 먹는 물이니까, 그때 물을 한 사발 떠
곶은낭 쉼질메 알에 톡 놔부니까 물을 찾을 수가 엇거든 고종달이가. 거난 곶은
낭 알에 행기물이다. 게서 그추룩 곶질 거, 곶질 거꺼지 다 그 도식에 나와 있는
데도 그 물을 못 찾이니까.

“이 문세도 헛문세다.”

고 해서 글로 찢엉 데껴 부니까. 수수뭇으로 서쪽더레는 생수 나는 데가 잇곡.
동쪽은 다 떠 불었다는 거지. 이 화북천 이 수수뭇까지는 전부 떠 오다가, 그 문
서를 보고 그로 후젠 다 좇아강 떠 오다가 건 못 헛다. 전설로는 우린 그렇게 들
었어요.

[조사자] 그 웃대 어르신덜부터 계속 경 얘기해놔구나예.

[제보자] 아주 오래 돼가지고, 그러니까 왜 그 몽니를 부렸다고 하나믄은 종달리라고 해서
내령 보니까. 그 자기 이름을 썼다고 해서 그냥 그때부터, 자기가 물신을 몬딱
그 떠오다가. 곶은낭 알에 행기물이라고 해서 그 쉼질메 깬에 곶정 내부니까. 그
쉼질메 가지가 요렇게 거 두 갠디 그 알에 강 곶저 부니까, 물을 찾을 수가 없거
든. 밧 가는 사름벙인 엇곡. 경해서 그 전설로 내려왔어 쪽. 그 물 지금도 물 좀
나요. 거기는. 거난 우리 동넨 여기 게도 하천변에, 거니까 그디보다는 이 서쪽
이니까. 하천변으로 물나는 동새미라는 데가 잇고. 요디 가며는 저 쪼꼼씩 남주
마는 저 드래샘이라고 그런 물이 잇어.

- 핵심어: 고종달, 영평, 곶은낭, 수수뭇, 물구신(물귀신), 사발, 쉼질메(소길마), 생수, 행기
물, 밧(밭), 드래샘, 동새미, 종달리